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활용한
미술 지도방안 연구

- 초등학교 3~6학년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고 은 경

2012 년 8 월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활용한 미술 지도방안 연구

- 초등학교 3~6학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동 언

고 은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8 월

고은경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년 8 월

A Study on Art Teaching Method Using Appreciation
of a Genre Painting in the Late Choson Dynasty
- Focused on 3rd to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un-kyung Ko

(Supervised by Professor Dong-eon K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2.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Dong-eon Kang , Prof. of Art Education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활용한 미술 지도방안 연구
- 초등학교 3~6학년 중심으로 -

고 은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강 동 언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술교육에서도 다양한 문화의 체험과 감상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전통미술인 한국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며, 특히 서구 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해 전통 문화와 미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문화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 나아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화 중에서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조선후기 풍속화를 선정하였다. 조선후기 풍속화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의 역사와 생활상을 알게 해주고 우리 민족의 개성과 정서, 독창적인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풍속화에 드러난 옛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현재의 삶과 비교해보고,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의 모습을 주제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과 폭넓은 인식을 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표현한 조선후기 풍속화 작품 감상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미적안목과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이해와 감상활동을 통한 표현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의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수업의 전개를 위해 단행본, 화집,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이해·감상활동을 도왔으며 참고 작품을 재구성하는 표현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주제표현과 조형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시켰다. 이러한 이해·감상·표현활동을 통합한 학습 지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 풍속화는 그 시대의 역사, 문화, 생활, 사상, 미의식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

고 있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조상들의 생활양식이나 정신세계, 문화적 특징을 이해 할 수 있었다.

둘째, 조선후기 풍속화의 조형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표현활동을 통해 평소 다뤄보지 못했던 재료를 사용해봄으로써, 용구의 특성과 사용법 등을 알게 되었다.

셋째, 다양한 풍속화 작품을 감상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표현 주제가 확장 되었고 학생들의 생각과 의도에 맞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표현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

넷째, 작품 감상과 발표를 통해 사고를 활성화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전통회화 수업을 즐기게 되었다.

다섯째, 오늘날의 풍속화 그리기 제작을 통해 무심히 지나치던 평범한 일상을 되돌아보고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한국화 교육의 발전과 한국화 수업을 위한 창의력 신장, 표현 활동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계속된다면 우리 문화의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2
II. 조선후기 풍속화의 이론적 배경	4
1. 한국화의 이해	4
2. 풍속화의 개념과 특성	6
3. 조선후기 풍속화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	21
III.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 활동을 통한 미술 지도	23
1. 현행 초등학교 학생들의 풍속화에 대한 사전조사	23
2. 지도 방법	28
3.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활용한 미술지도 계획	32
4.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활용한 미술지도 실제	34
5. 지도 적용 후 학생들의 인식 조사	55
IV. 결론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5

표 목 차

<표 1> 한국화에 대한 인지도	23
<표 2> 한국화와 서양화에 대한 선호도	24
<표 3> 풍속화에 대한 인지도	24
<표 4> 풍속화 감상에 대한 조사	25
<표 5> 풍속화에 대한 이해도	26
<표 6> 풍속화 제작 경험	27
<표 7> 풍속화 미술 수업에 대한 참여 의사	27
<표 8> 조선후기 풍속화 지도 계획	33
<표 9> 풍속화 모사하기 I (1차시)	35
<표 10> 풍속화 모사하기 II (2차시)	39
<표 11> 조선후기 풍속화 책갈피 만들기(3차시)	42
<표 12> 풍속화 이어그리기(4차시)	46
<표 13> 풍속화 전·후 장면 상상하여 그리기(5차시)	48
<표 14> 오늘날의 풍속화 그리기(6차시)	52
<표 15> 풍속화에 대한 인지도	55
<표 16> 풍속화에 대한 이해도	56
<표 17> 풍속화 표현활동 선호도	57
<표 18> 풍속화 미술 수업에 대한 평가	57
<표 19> 미술 수업 후 풍속화에 대한 생각	58
<표 20> 한국화에 대한 관심도	58

그 립 목 차

<그림 1> 묘주초상, 안악3호분, 고구려	9
<그림 2> 무용도, 무용총, 고구려	9
<그림 3> 수렵도, 무용총, 고구려	9
<그림 4> 나물 캐기, 윤두서, 조선	12
<그림 5> 짚신 삼기, 윤두서, 조선	13
<그림 6> 짚신 삼기, 김득신, 조선	13
<그림 7> 장기 두는 사람들, 조영석, 조선	14
<그림 8> 새참, 조영석, 조선	14
<그림 9> 바느질, 조영석, 조선	14
<그림 10> 씨름, 김홍도, 조선	15
<그림 11> 서당, 김홍도, 조선	15
<그림 12> 활쏘기, 김홍도, 조선	16
<그림 13> 벼타작, 김홍도, 조선	16
<그림 14> 대장간, 김득신, 조선	17
<그림 15> 대장간, 김홍도, 조선	17
<그림 16> 투전도, 김득신, 조선	18
<그림 17> 야묘도추, 김득신, 조선	18
<그림 18> 단오풍정, 신윤복, 조선	19
<그림 19> 쌍검대무, 신윤복, 조선	19
<그림 20> 줄광대, 김준근, 조선	20
<그림 21> 미술과 교육의 학습 목표 체계	29
<그림 22> 김홍도 「활쏘기」	34
<그림 23> 김홍도 「서당」	34
<그림 24> 김득신 「야묘도추」	34
<그림 25 ~ 27> 학생 작품	37
<그림 28> 「전모 쓴 여인」	38

<그림 29> 「어물장수」	38
<그림 30> 「장옷 입은 여인」	38
<그림 31> 「쌍검대무」	38
<그림 32> 「연소담청」	38
<그림 33 ~ 37> 학생 작품	41
<그림 38 ~ 42> 학생 작품	44
<그림 43> 윤두서 「나물캐기」	45
<그림 44 ~ 49> 학생 작품	47
<그림 50> 김홍도 「서당」의 전·후 장면	50
<그림 51> 김홍도 「씨름」의 전·후 장면	50
<그림 52> 김득신 「송화기승」의 전·후 장면	51
<그림 53> 서은애의 「긴 오후」	52
<그림 54 ~ 59> 학생 작품	5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술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면서 시각적 조형언어를 통해 그 시대마다 지니는 사상적인 특징과 생활방식에서 형성되는 문화를 반영하며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미술을 교육하는 것은 선조들의 미의식과 삶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긍지를 지니게 하는데 있다.

또한 지금의 현대 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의 미술 교육에서도 다양한 문화의 체험과 감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전통미술인 한국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특히 서구 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해 우리 전통미술의 입지가 좁아져 문화 정체성의 혼돈이 야기되고 있다.

현재의 미술 수업에서 한국화 교육이 미흡한 이유는 미술 수업 자체가 서구 중심적인 이론과 학습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한국화에 대한 학습 방법과 자료, 내용 등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서양화의 이론과 용어, 재료와 표현기법에는 익숙하지만 한국화의 이론과 용어, 재료와 표현기법은 어려워하고 낯설어 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 한국화가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필묵으로 그린 수묵화만이 한국화라고 여기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서구 지향적 교육에 길들여져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미의식, 삶의 지혜 등을 고취시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체계적인 전통미술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한 미술교육은 이론적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해와 감상, 표현활동이 연계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2009 개정 미술과 교육 과정에서는 미술의 다양한 체험, 표현, 감상활동이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미술 수업에서는 단순한 사물묘사 등 표현 위주의 실기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미술에 대한 거부감과 거리감을 가지게 하여 수업 자체를 지루해하고, 미술에 소질이 있는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미술 교육은 표현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미술의 이해와 감상을 통해 전통미술의 정신성과 미의식이 오늘의 삶에 비추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새롭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동시대의 미의식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한국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솔한 삶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 표현함으로써 조상들이 지녔던 나뉘는 미학이나 삶에 대한 애정, 해학적이면서도 관조적인 생활 태도 등을 배우게 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효율적인 풍속화 지도를 위하여 이해·표현·감상활동을 통합한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효과적인 풍속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감상을 하고 한국화와 풍속화의 개념, 풍속화의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보았다. 또 교수 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시키며 표현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고, 풍속화를 단지 옛 그림으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대에 적용하여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단행본, 화집,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또 수

업 전에 풍속화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시켰으며 학생들이 표현한 작품을 통해 지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논문의 제한점은 풍속화의 범위를 조선시대 후기의 풍속화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연구자가 필요한 작품을 임의로 선별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제시한 교수 학습 과정안은 방과후학교 수업 또는 특별활동 시간에 적용한 것으로 실제 미술수업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II. 조선후기 풍속화의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우리의 전통미술이 갖고 있는 조형성과 자연관, 미의식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한국화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본 후 풍속화의 개념과 흐름, 대표적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조선후기 풍속화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1. 한국화의 이해

한국화는 우리의 독자적인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는 회화이다. 전통적인 기법과 회화양식을 한국화라고 말하지만 요즘에는 “한국적 스타일의 그림, 전통적 재료와 동양적 회화관으로 그린 그림, 재료와 기법, 표현양식, 주제, 소재, 예술관에서 보편적이고 품격이 있으며 우리의 정서를 잘 반영한 그림”¹⁾이라 말한다. 즉 재료, 기법, 양식이 서로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화를 전통회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화는 수묵화와 채색화로 구분하며 수묵화는 그림을 그릴 때 채색을 하지 않고 먹으로 그리는 동양회화 고유의 양식이고 주로 먹의 진하고 흐린 농담의 변화와 선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그린 그림이다. 수묵화는 “구상이 이루어져 단숨에 그려나가는 웅대하고 거침없는 필력이라든가, 상쾌한 속도를 가진 선의 아름다움, 농담 변화의 묘, 번짐이 주는 깊은 맛 등 수묵화가 지닌 특성은 크고도 끝이 없다.”²⁾ 특히 채색화처럼 한지 위에 여러 번 색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의 필선을 살려 그리기 때문에 그리는 작가의 정신이 강조되었다. 즉 채색화에서는 지닐 수 없는 담백한 맛과 운치를 구현하기에 좋은 회화 양식으로써 많은 문인들과 선비들이 즐겨 그렸으며 조선시대에는 회화중심의 산수화, 문인화 등이 발달하였다.

1) 백범영(1997), 「한국화의 이해」, 용인대학교 조형연구소, pp.30~31.

2) 서제섭(1992), 「水墨畫」, 형실출판사, p.7.

채색화는 장지나 순지 위에 채색을 사용하여 그려진 그림이며 그림을 그릴 때 먹이나 채색을 계속 반복하며 그리는 방식이다. “서양화 재료인 유화 등의 고착제들이 물감 입자를 둘러싸서 굳어지게 하는데 반하여, 아교는 건조할 때 부피가 줄어 물감 입자를 최대한 얇게 피복하여 물감의 색상을 오히려 높여준다. 따라서 물감을 두껍게 덮어 버리는 유화 등의 양식과는 달리 우리의 채색화는 밑색이 겹쳐지면서 색의 깊이감과 다양한 색의 변화를 표현 할 수 있다.”³⁾ 전통적으로 색은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색이 많이 쓰인다.

한국화는 사물의 내부에서 본질을 파악하려는 한국인의 정신성을 잘 나타낸 예술이다. 자연을 포착하여 그것을 표면적인 묘사에만 그치지 않고 심상으로 그리는 점이 한국화의 본래 모습이다. 이러한 한국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우리 회화의 근본 바탕에는 유교·불교·도교의 정신이 담겨 있다. 삼강오륜과 같은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은 유교 정신, 달마도나 불화 등은 불교의 정신, 신선도나 무릉도원, 산수를 그린 그림은 도교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 사상들은 자연을 묘사하고 표현하면서 더욱 자연적인 삶을 지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였으며 자연과 하나 된 삶,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우리의 회화에는 유교·불교·도교의 정신이 각각 표현되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며 조형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근본 바탕을 알면 우리나라 회화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교의 회화 정신은 그림을 그리는 기법보다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작가는 정신적인 소양을 쌓은 후에 표현기법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유교 정신인 ‘오덕(五德)’을 겸비해야 하는데 오덕이란 인·의·예·지·신으로서 공손, 검손, 겸양, 온화”⁴⁾ 등을 뜻하며, 이 다섯 가지가 그림 속에 담겨 있어야 진정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회화 정신은 ‘선(禪)’을 기초로 한 것으로, “선(禪)은 속세를 초월하고 대자연과 합일하기 위한 최고의 경지”⁵⁾이며, 선은 마음의 근원으로 수양을 통해 정신을 닦고 그림을 그렸을 때 속세를 초월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또

3) 박완용(2002), 「한국 채색화 기법」, 도서출판 재원, p.12.

4) 김충수(2001), 「우리 그림 여행」, 동녘, p.62.

5) 노경상(1995), 「한국화 백문백답」, 금호문화, pp.186~189.요약

선은 “정신수양으로 이루어지는 우주무한의 추상미로서 자기의 정신이 우주의 자연과 결합되어 하나의 추상 이치를 깨달으면 자연히 그 화가는 회화의 속세를 초월하고 위대한 화가가 된다.”⁶⁾고 보았다. 이처럼 불교의 회화 정신에서는 작품의 외적인 표현보다 작가의 내면의 세계를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

도교의 회화정신은 노장사상으로 무위자연(無爲自然)정신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여기서 무위자연이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표현의 기교보다는 자연과 하나가 되었을 때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도가사상은 현실적 인간생활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유를 실현하려는 고차원적 정신세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유교의 오덕과 불교의 선, 도교의 무위자연 사상은 개별적,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산수화, 초상화, 풍속화 등 우리나라의 회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기본 사상을 전통회화 작품의 감상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

2. 풍속화의 개념과 특성

1) 풍속화의 개념

풍속화(風俗畵)는 인간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으로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미술 장르 중의 하나이다. 풍속화는 조선시대 회화의 독창성과 사실주의적 표현을 드러내면서 평범하고 친숙한 일상속의 소재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풍속화는 “예술성만이 아니라 한국성, 기록성, 사료성, 시대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서”⁷⁾ 역사적으로도 그 가치가 크다.

풍속화에 있어서 넓은 의미는 “한 시대의 세정(世情)과 풍습을 나타낸 그림”⁸⁾을 말하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소재로 하되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6) 김종태(1990), 「동양회화사상」, 일지사, p.88.

7) 안휘준(2010), 「정출어람의 한국미술」, ㈜사회평론, pp.236~237.

8) 이원복(2005), 「회화」, 서울출판사, p.51.

의례·신앙·놀이·잔치·생업 장면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 예로 왕실과 조정 등 궁중의 행사, 양반 사대부들의 여러 가지 문인취향을 담은 그림, 민간신앙, 전승놀이, 관혼상제, 세시풍속 같은 그림들로 구성되었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 풍속화는 “소위 「속화(俗畵)」라고 하는 개념과 상통한다. 이때의 「속(俗)」이라는 것은 단순히 풍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저속하다」 혹은 「저급한 세속사(世俗事)」”⁹⁾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반 백성들의 다양한 생활모습, 양반과 서민의 차별, 양반의 한가롭게 노는 모습, 유흥 문화, 지방 관리의 타락상, 처첩 갈등, 노름, 여색, 광대 등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풍자와 해학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풍속화는 그 시대의 모습과 인간의 삶을 사실적으로 반영하여 표현한 회화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앙적인 의미에서 점차 정치적 성향의 그림으로 변화하였으며 그것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모습까지 담은 폭넓은 그림으로 변화되어 왔다.

풍속화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풍속화’라는 용어를 “조선 후기의 문헌에서는 통상 ‘속화(俗畵)’라 표기했고, 자비대령화원 녹취재의 8개 화문 가운데 하나로 채택된 풍속화의 공식 명칭도 ‘속화’였다. ‘풍속화’라는 용어는 서양 ‘장르 페인팅(genre painting)’의 번역어로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경 중국과 일본에서부터 사용”¹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에도 풍속화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을 통하여 전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예로 “1918년 아유가이 후사노신(鮎具房之進)이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아홉 차례에 걸쳐 연재한 「조선의 서화」에 풍속화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또한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는 『조선미술사』(朝鮮美術史, 1932)에서 조선시대 신윤복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풍속화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우리나라 학자로는 고유섭(高裕燮)이 1958년에 「조선의 회화」에서 성세창(成世昌), 신윤복(申潤福), 김홍도(金弘道) 등은 풍속화”¹¹⁾를 많이

9) 안휘준(1989), 「한국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p.168.

10) 강관식(2001),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상]」, 돌베개, pp.552~556.

11) 정병모(2000),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p.17.

남겼다. 이후 풍속화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쓰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풍속화는 각 나라마다 용어는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자신들의 풍습, 문화, 생활상 등 일상적인 모습을 표현한 미술의 한 장르이다.

2) 풍속화의 흐름

풍속화는 오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한 시대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물론 그 시대의 전반적인 사회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풍속화의 처음은 청동기 시대 유물인 반구대 암각화와 농경문청동기에서 비롯된다.

반구대 암각화는 그물로 동물을 잡거나 가두는 장면, 고기잡이를 하는 장면, 임신한 동물의 모습 등 일상의 생활상과 사냥감을 다량으로 포획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술적인 기원이 담겨있다.

농경문청동기는 한 쌍의 새들과 밭을 갈고 있는 남자, 팽이로 땅을 파는 모습, 곡식을 담으려는 인물 등이 새겨져 있으며 “인물, 농기구, 경작지 등을 추상적인 선으로 묘사해 청동기시대의 농경과 농경 관련 의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¹²⁾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청동기시대에도 인간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풍속화 장르를 볼 수 있다.

삼국시대는 풍속화가 회화로써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삼국시대 중 고구려를 제외하고 전래되는 그림이 남아 있지 않아서 고구려 시대의 고분벽화가 풍속화의 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벽화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한국인의 토착문화, 종교관을 비롯해서 풍속화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고구려의 고분벽화는 묘실의 구조, 공간구성, 벽화의 주제와 내용, 양식 등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된다.

고구려 초기의 고분벽화는 「안악3호분」, <그림 1>과 덕흥리 고분으로 주로 초상, 사냥, 무용, 행렬 등의 생전의 주요 사건이나 생활모습이 묘사되었으며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어 이를 통해 고구려의 생활상과 당시의 내세관 등을

12)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유물마당, 큐레이터 추천유물



<그림 1> 묘주초상, 안악3호분, 고구려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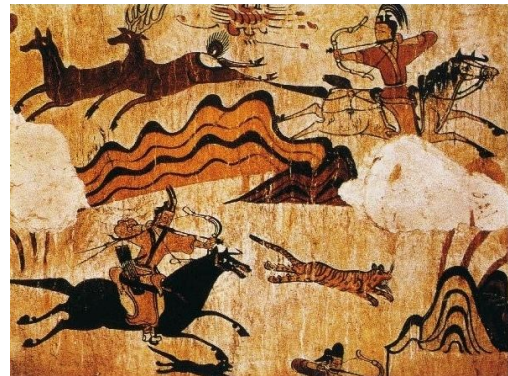
고구려 중기 고분벽화에는 전기의 인물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에서 “사신도(四神圖)와 인동당초(忍冬唐草) 무늬 등 불교적 장식무늬가 추가되며, 각저총, 무용총, 개마총”¹³⁾ 등이 해당된다.

무용총의 「무용도」, <그림 2>는 남녀 14명의 춤추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다른 고구려의 벽화와 마찬가지로 평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들이 입은 옷은 “고구려의 전통의상이며, 옷자락을 앞으로 솔리게 그려 움직임의 나타낸 것 역시 고구려의 전형적인 표현방식이다.”¹⁴⁾ 이것을 통해 당시의 복식과 문화를 알 수 있다.

무용총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수렵도」, <그림 3>은 인물들이 말을 타고 사슴과 호랑이를 향해 활을 쏘는 모습을 묘사하였으며 배경에 웅장한 산이나 초목 대신 굽은 띠와 선을 번갈아 그린 곡선에서 화면의 운동감을 나타내었고 인물을 중앙에 두면서 배경을 작게 그린 것이 특징이다. 이런 표현에서 고구려 특유의 힘차고 역동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림 2> 무용도, 무용총, 고구려



<그림 3> 수렵도, 무용총, 고구려

고구려 후기의 벽화그림의 주제는 사신도로 바뀌면서 도교적인 요소가 가미된

13) 강민기 외 5인(2006), 「한국미술문화의 이해(개정판)」, 학지사, p.46.

14) 정병모(2001),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다홀미디어, p.55.

다. 이러한 예로는 강서대묘와 강서중묘, 사신총, 평양 진과리 1·4호 등이 있다. 강서대묘는 강서삼묘 중 가장 큰 벽화고분으로 벽화의 내용은 사신도(四神圖) 및 장식 무늬이다. 고구려 후기 고분의 대표적인 벽화 주제인 사신(四神)은 4계절과 사방 하늘을 대표하는 영물(靈物)이다. 청룡과 백호는 악귀를 쫓아 무덤을 지키는 영물이고, 암수 한 쌍의 주작과 현무는 음양을 조화시키는 신수로 그려졌다. 이렇게 사신도는 “고구려 그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비성·역동성·동감의 특성”¹⁵⁾이 잘 나타나 있으며 필치가 세련되어 한국의 고분벽화 중에서 극치를 이루는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고분벽화를 통하여 고구려 시대 회화의 특징과 복식, 생활, 건축, 불교와 도교의 우주관, 내세관 등 당시의 실존했던 많은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는 인물, 초상, 산수, 영모, 화조, 목죽 등 다양한 소재의 일반회화와 불교회화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생활양식도 다양해지고 풍부해져서 생활상을 보여주는 풍속화도 제작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작품이 거의 없어서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고려시대에 시작되어 조선시대에 크게 유행된 선비들의 계(契)라든지 각종 회연(會宴)이나 의궤(儀軌)가 조선 초기와 중기에 빈번하게 그려졌고, 또 상당수 남아 있는데 이러한 그림들은 풍속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¹⁶⁾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풍속화의 전통은 조선시대 풍속화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다양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조선시대는 우리나라의 회화가 다양한 장르의 양식과 특징을 지니면서 발전하였다. 산수화, 인물화, 영모화, 화조화, 풍속화, 민화, 사군자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 불교회화에서 나타나는 화려하고 짙은 채색화보다 먹과 담채를 위주로 하는 수묵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정책(抑佛崇儒政策) 때문에 일반회화의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한당한 채 주로 불교회화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중요한 회사(繪事)들은 그림을 전문으로 하는 화원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사대부 화가들”¹⁷⁾이 화단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풍류를 즐겼으며

15) 이동주(1996),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 (주)시공사, p.57.

16) 안휘준(1993), 「한국회화사」, 일지사, pp.169~174.

17) 정양모 외 13인(1993), 「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p.314.

중국으로부터 화풍을 받아들이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시대에 풍속화가 가장 유행한 시기는 조선시대 후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실학(實學)은 물론 문학, 회화, 음악 등 학술(學術)의 각 분야에 걸쳐 일어났던 새로운 경향이 풍미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봉당정치나 탕평정치를 능란하게 구사하여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농업·공업·상업의 발달과 화폐유통경제의 성숙, 그리고 국제교역의 확대”¹⁸⁾ 등을 통해 국가 전반의 경제력이 상승된 시대였으며 농업과 상공업의 발전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서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신분구조가 붕괴되었다.

조선후기에 풍속화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17, 18세기의 영·정조(英·正祖) 간에 나타난 사회적인 변동이고 그 변동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실추된 양반사대부 사회의 존재이유와 그것을 뒷받침했던 유교(儒敎) 이데올로기의 기능상실이였다.”¹⁹⁾ 또한 신분구조의 붕괴와 서민 생활의 발전에 따른 서민층의 회화소장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조선후기 풍속화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림의 소재나 내용이 다양해지고 이 시대의 화가들에 의한 독특한 표현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후기 풍속화는 주로 중인인 도화서 화원들에 의해 그려졌지만 초석을 놓고 기초를 닦은 것은 양반 사대부화가였다. 풍속화의 시작은 사대부화가인 공재 윤두서와 관아재 조영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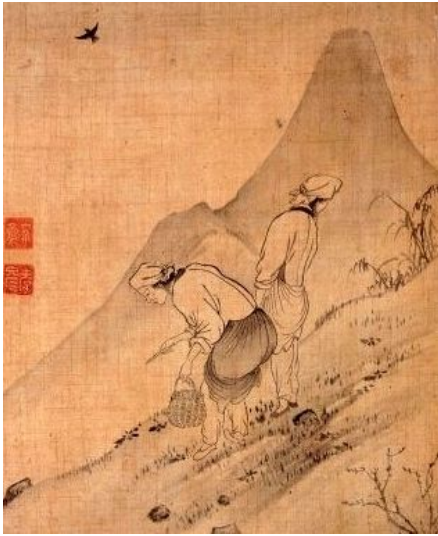
윤두서는 당시 정계에서 소외된 남인출신이며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던 선비화가로서 사실적 창작태도로 현실 대상을 포착하여 자신의 사회의식과 주변사람에 대한 사랑을 민중생활을 작품에 담았다. 그의 불우한 삶은 서민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나타나 그들의 생활 모습을 화폭에 담게 한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윤두서가 그린 풍속화 중 대표적인 작품은 「나물 캐기」, 「짚신 삼기」, 「목기 깎기」, 「돌 깨기」 등이다.

「나물 캐기」, <그림 4>는 이른 봄에 나물을 캐는 두 아낙네의 모습을 그린

18) 김현주(2002), 「관소리와 풍속화 그 닦은 예술세계」, 효형출판, p.12.

19) 박용숙(1991), 「韓國美術의 起源」, 예경출판사, p.388.



<그림 4> 나물 캐기, 윤두서, 조선

작품이다. 한 아낙네는 한 손에 광주리를 들고 허리를 굽혀 나물을 캐려는 자세를 하고 있으며 다른 이는 서서 뒤를 돌아보며 나물을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배경으로 그려진 산의 두 봉우리가 우리 산천의 모습과 닮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들판에서는 우리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윤두서는 자신의 그림에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이 아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시도였다. 그러나 “도식적인 인물 표현법이나 불안정한 구도, 그리고 유기적 연관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소재 등 초기 풍속화로서의 미숙성”²⁰⁾이 드러나 있다.

「짚신 삼기」, <그림 5>는 나무 아래에서 노인이 짚신을 삼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짚신을 삼는 노인의 포즈와 다리털, 발가락 등을 정확하게 묘사하여 인물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나무와 잎사귀는 관념 산수의 표현법을 따르고 있어서 사실적인 분위기를 내는 데에는 부적절하다. 특히 나무에서 흘러내리게 그려진 덩굴식물은 절과화풍의 전형적인 표현법이기도 하다.”²¹⁾ 또 일반적으로 짚신을 삼을 때 인물의 옆에 짚과 칼을 두고 작업을 한다. 예를 들어 김득신의 「짚신 삼기」, <그림 6>을 보면 짚신을 삼는 도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반면에 윤두서의 작품에는 이러한 요소가 생략되어 있어 사실적인 분위기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윤두서가 “풍속화를 다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산수 배경을 중시했던 것”²²⁾과 양반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 성리학적 이념에 간혀있던 틀을 벗어나 조선 후기 풍속화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20) 정영목 외 11인(2008), 「한국의 미술가-인물로 보는 한국미술사」, ㈜사회평론, p.113.

21) 이내옥(2005), 「공재 윤두서」, ㈜시공사·시공아트, p.281.

22) 이동주(1975), 「우리 나라의 옛 그림」, 博英社, p.209.



<그림 5> 짚신 삼기, 윤두서, 조선



<그림 6> 짚신 삼기, 김득신, 조선

윤두서가 산수 인물화를 풍속화로 전환하는데 공헌하였다면 이를 계승하여 정립한 화가는 조영석이다.

윤두서는 실제 생활에서 소재를 선택했지만 산수 배경을 표현한 반면, 조영석은 윤두서의 그림에 남아있는 관념적인 산수화의 잔재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상을 선택해 현상에서 직접 실사(實寫)하는 태도를 보여 일보 전진된 사생방법”²³⁾을 보이고 있다.

조영석은 「장기두는 사람들」, 「절구질하는 여인」, 「바느질」, 「새참」, 「작두질」, 「말 징 박기」 등 간결한 묘법으로 당시 서민의 일상을 소재로 한 작품을 표현하였지만 사대부의 입장에서 문인화의 정신성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의 속된 풍습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작품을 다른 이에게 보이는 것을 꺼려하였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작품도 많지 않다.

그의 작품들 중 「장기 두는 사람들」, <그림 7>은 선비들의 여가생활을 형상화한 것이다. 소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는 사람의 표정과 동세, 구경꾼들의 호기심 가득한 동작들이 풍속화다운 정서를 풍긴다. 또 화면의 구성은 조영석의 「새참」의 일렬횡대식 구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평으로 길게 늘어선 구도를 보여주는 「새참」, <그림 8>은 고된 농사일을 하다가 식사를 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앞을 보고 앉은 인물들과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인물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왼쪽 끝에 앉아서 아들에게 밥

23) 이태호(2002), 풍속화(하나), 서울: 대원사, p.47.



<그림 7> 장기 두는 사람들, 조영석, 조선

것이다. 여인의 자세 또한 쪼그려 앉고, 무릎 꿇고, 한 다리를 뺀고 하여 다양하게 포착하고 있는데 역시 몸동작을 정확히 그렸다.

「바느질」과 「새참」은 인물위주의 표현으로 배경을 여백으로 남기면서 인물들의 표정과 동작만으로 상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배경 없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공간처리는 김홍도의 풍속화에도 나타난다.

을 먹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감이 넘친다. 이러한 그림에서 당시 서민생활의 모습과 정서가 잘 나타나고 있다.

「새참」과 같은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바느질」, <그림 9>는 바느질하는 여인들의 일상 풍속을 그린 것으로 꿰매고, 접고, 가위질하는 모습을 그려낸



<그림 8> 새참, 조영석, 조선



<그림 9> 바느질, 조영석, 조선

풍속화에 있어서 대표적인 화원화가로는 단원 김홍도, 긍재 김득신, 혜원 신윤복 등이 있으며 이들은 조선후기 풍속화의 절정을 이끌었다.

김홍도는 산수화, 도석인물화, 인물화, 풍속화, 화조화 등 “ ‘근대명수’라는 강세황의 평가대로 다루지 않은 소재가 없을 정도로 모든 회화 영역을 통달하였다.”²⁴⁾

24) 이태호(2005), 「풍속화(들)」, 서울: 대원사, p.13.

특히 그의 풍속화는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였으며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소재로 하였다.

그 중 「씨름」, <그림 10>은 우리나라 서민의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실감나는 상황을 보여준다. 중앙에 두 명의 씨름을 하는 사람과 주위에 둘러앉은 구경꾼들의 진지하고 흥분된 모습, 씨름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엿을 팔고 있는 엿장수 소년 등 다양한 표정과 동작을 표현하면서 작품에 재미를 더하며 현장감 있게 그려졌다. 또한 “관중들이 모두 빙 둘러앉아 씨름하는 것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구심적(求心的)인 원형 구도”²⁵⁾를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원형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는 「서당」, <그림 11>을 들 수 있다. 「서당」은 훈장에게 꾸중을 듣는 아이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아이들을 원형으로 배치하면서 빈틈없는 화면을 구성하였다. 배경을 여백으로 하여 인물의 동작과 표정만으로 적절한 화면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림 10> 씨름, 김홍도, 조선



<그림 11> 서당, 김홍도, 조선

「활쏘기」, <그림 12>는 위쪽 돌에 앉아있는 사람은 화살 통에서 화살을 꺼내어 살펴보고 있고 맨 아래쪽에 앉은 사람은 활시위를 당겨보고 있으며 가운데에 활을 들고 화살을 날리려고 하는 사람은 활 쏘는 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다. 이처럼 인물들의 표정과 동작을 통해 그들의 심정을 엿볼 수 있으며 이 작품 또한 과녁이 있는 장소의 모습 등 배경을 여백으로 하였다.

「벼타작」, <그림 13>은 농민들이 벼를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

25) 오주석(2008),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술출판사, p.37.

다. 베어낸 벼를 지게에 지고 나르는 사람과 통나무에 내리쳐 알곡을 털어내는 사람, 털어낸 알곡을 쓸어 모으는 사람 등 모두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반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민에 비해 양반은 비스듬히 누워 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는 당시의 신분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농민들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신분간의 갈등이나 대립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현실적 갈등의 관계를 초월하는 해학과 중용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홍도의 풍속화는 힘찬 선들을 간결하게 구사하여 기운생동하게 표현하였으며 수묵 위주로 “채색은 인물의 살갗만 하였고, 화면 구성에서 철저히 배경을 생략하는 방법을 택하였다.”²⁶⁾ 또한 인물들의 건강미, 해학미 등 그 시대의 활력을 그림에 담았다.



<그림 12> 활쏘기, 김홍도, 조선



<그림 13> 벼타작, 김홍도, 조선

조선후기 풍속화의 형식에서 김홍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김득신이 다. 두 화가의 필법이 흡사하여 낙관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을 못할 정도였다.

그의 풍속화는 「야묘도추」, 「대장간」, 「장기 두는 승려들」, 「투전도」, 「짚신삼기」, 「어선」 등으로 선비들과 서민들의 일상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중 「대장간」, <그림 14>는 김홍도의 「대장간」, <그림 15>를 그대로 본떠 그린 것으로 조선시대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인 대장장이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김홍도의 작품에서는 인물 모두가 일에 몰두하고 있지만 김득신의 작품에서는 불에 빨갛게 달궜진 쇳덩이를 잡고 있는 인물이 열기 때문인지 고개를 돌리

26) 유흥준(2001), 「화인열전2」, 역사비평사, p.169.

고 있으며, 망치를 들고 있는 인물의 상의가 탈의된 채 일하는 모습도 김홍도의 작품보다 오히려 더 생동감이 있으며 자연스럽게 보인다. 또한 배경으로 대장간의 풍경을 그려 넣으면서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김득신은 김홍도의 화풍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14> 대장간, 김득신, 조선



<그림 15> 대장간, 김홍도, 조선

「투전도」, <그림 16>은 인물들이 방 안에 모여앉아 도박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인물들의 초조한 표정을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배경은 방 안을 최소한으로 표현하였고 노름판에 필요한 도구들이 그려졌다. 또 안경을 쓰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당시에 안경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어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김득신의 해학성이나 독창성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인 「야묘도추」, <그림 17>은 마당에서 있던 병아리를 물고 뒤돌아보며 달아나는 고양이와 담뱃대로 고양이를 잡으려다가 마루 밑으로 떨어지는 주인의 모습,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주인과 여주인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모습, 놀란 어미닭과 쓰러진 병아리들 등 한 순간의 장면이 생생한 묘사로 실감나게 표현되었다.

비록 그의 작품이 “김홍도의 아류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김홍도의 작품에 은은히 흐르는 인간들의 품위나 은근한 시정에 비하면 김득신의 작품에서는 풍김이 또 다른 익살과 재치가 엿보인다.”²⁷⁾ 또한 그는 작품을 통해 풍부한 표현력을 보여주었으며 배경과 상황의 묘사에도 뛰어났다.

27) 최순우(2003),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학고재, P.378.



<그림 16> 투전도, 김득신, 조선



<그림 17> 야묘도추, 김득신, 조선

조선후기 풍속화를 대표하는 또 다른 작가는 신윤복으로 정확한 생존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은 화가이며 “안타깝게도 그림 외에 인용할 만한 어떤 쓸만한 문헌정보도 남아있지 않지만”²⁸⁾ 김홍도에게서 받은 영향을 재해석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창안하였다.

김홍도나 김득신이 소탈하고 익살맞은 서민의 모습을 그린 반면 “신윤복은 조선후기의 18세기 후반에 있어 계층이 낮은 남녀들의 묘사를 의욕적으로 시도한 화가로 한국 회화 사상최대의 美人 風俗畫가이고 대단히 개성적인 화가”²⁹⁾이며 특히 여인들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이를 표현하였다.

신윤복은 여속과 춘의가 담긴 그림에 있어 독보적이며 작품의 소재는 기방, 기녀, 양반과 기녀의 풍정 등 당시에 파격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렸다. 대표적인 작품은 화첩용으로 비단 바탕의 「처녀를 쓴 여인」, 「전모를 쓴 여인」, 「거문고 줄 매기」, 「어물장수」 등과 종이에 그린 「다림질」이 전해지며 그 밖에 「단오풍정」, 「선유도」, 「월하정인」, 「쌍검대무」, 「연소담청」, 「쌍륙삼매」 등이 있다.

그 중 「단오풍정」, <그림 18>은 단오 날에 여인네들이 목욕을 하고 그네를 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배경과 인물들이 잘 조화되고 있으며 목욕하는 여인들의 은은한 살색의 처리와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는 원색의 과감한 사용 등 색채의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뒤에서 아낙네들의 목욕을 엿보고 있는 젊은 승려들의 모

28) 강명관(2001), 「조선 풍속사3(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푸른역사, p.11.

29) 최순우(2003),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학교재, p.239.

습이 해학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목욕을 하는 여인들은 흰히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으며 머리에 보따리를 들고 오는 여인도 젖가슴이 다 드러나 보이도록 과감하게 표현하는 등 유교적인 사회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림들이다.

「쌍검대무」, <그림 19>는 검을 들고 춤추는 여인들과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쓰인 색을 보면 주제가 되는 두 여인의 옷자락이 청색과 적색의 강렬한 대비로 긴장감과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색감은 조용히 가라앉은 색감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주된 소재에는 강하고 대담한 원색을 사용하여 화면에 포인트를 줌으로써 긴장감을 조성하며 밀도를 더해준다. 그의 작품에는 짙은 연지, 담홍색, 자주, 보라, 진황색 같은 종래의 화가들이 기피해 왔던 채색이 지니는 본연의 색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신윤복은 관습이나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당시 사회에서 꺼려하던 소재들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회화적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8> 단오풍경, 신윤복, 조선



<그림 19> 쌍검대무, 신윤복, 조선

그러나 풍속화는 19세기에 이르러 급격히 쇠퇴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김정희를 중심으로 남종화가 이 시대의 화단을 지배하였다. 이 시대의 남종화는 조선 후기의 업적과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하였다기보다는 김정희의 영향 하에 원·명·청대의 남종화를 받아들여 사의(寫意)”³⁰⁾를 존중하고 형사(形似)를 경시하였다.

30) 김원용·안휘준(2003), 「한국미술의 역사」, (주)시공사·시공아트, p.530.

또한 급변하는 사회상을 포착하기보다 선배들의 사실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대표적으로 세시풍속을 담은 경직도(耕織圖)류의 틀에 박힌 병풍용 장식그림과 성적인 묘사를 담은 춘화가 제작되었다. 경직도류 병풍의 그림은 시대정서나 현실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선배 화가들의 작품을 모방하였고, 춘화는 표현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면도 너무 선정적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조선말기의 풍속화는 더 이상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구한말 시대의 풍속화는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식민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근대화로 발전할 수 없었지만 명맥은 유지되었으며 대표적인 작가로는 김준근, 김윤보 등이 있다. 특히 기록화적인 성격으로 치우친 구한말 풍속화의 주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 예로 김준근의 「기산풍속도첩」, <그림 20>을 들 수 있다. 외줄을 타고 중심을 잡고 있는 광대와 그 밑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악사들, 광대를 구경하고 있는



<그림 20> 줄광대, 김준근, 조선

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세필로 인물들의 눈매를 자세히 그렸는데 “이 눈매와 표정의 묘사가 얼마나 실감 있고 놀라운가는 문인화가들이 그린 인물화와 비교하면 한층 더 두드러진다. 구매자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다는 증거”³¹⁾이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물의 표정을 실사구시적으로 그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외국인을 위한 민속화류로 변모하여”³²⁾ 해외에서 더 많이 전해지고 있다.

현대에 와서도 생활상을 표현하는 풍속화가 계속 이어져왔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등장한 민중미술도 일종의 풍속화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전시회에

31) 박용숙(2000), 「한국미술사 이야기」, 예경, p.418.

32) 국립광주박물관 도록(2002), 「朝鮮時代 風俗畵」, 국립광주박물관, p.10.

서 보여주고 있는 성차별, 인종차별, 환경문제, 전쟁모습 등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작품의 주제로 한 그림들 역시 현재의 풍속화이다.

이러한 현재 사회의 문제점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보여 지는 일상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그 속에 숨겨진 감정과 해학들을 보여준다면 기존에 풍속화의 감동과는 또 다른 정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오늘날의 풍속화로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풍속화의 명칭이 다른 용어로 바뀔 수도 있고 표현하는 방식도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인간의 생활상을 기록하는 장르가 될 것이다.

3. 조선후기 풍속화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

조선 후기 풍속화는 역사적 증거로서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풍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의 내용과 표현 형식을 통하여 신분사회의 변화된 모습 등 조선후기의 시대정서를 엿볼 수 있다. “당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사상체계를 세우려는 실사구시의 학문이 대두”³³⁾ 되었으며 이런 가운데 사대부 화가들이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또 서민들 사이에서 경제력을 가진 부민 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양반들이나 중인들과 마찬가지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는 계층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작가들은 서민들의 풍습과 놀이, 삶의 일상 등 다양한 모습들을 주된 표현 대상으로 삼았으며 어느 문헌보다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후기 풍속화의 또 다른 중요성은 사대부 화가와 화원의 구별 없이 풍속화를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풍속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두서나 조영석 등의 사대부 화가들이 서민들의 생활에 눈을 돌려 그 모습을 화면에 담았으며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등의 전문 화원들이 이를 더 발전시켜 단순히 서민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긴장미 넘치는 화면에 등장인물의 자세나

33) 이태호(1996),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p.140.

표정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사대부 화가들과 전문 화원들은 조선 특유의 삶과 멋을 그림에 담았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회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전통미술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풍속화는 지금의 한국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후기의 풍속화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넘어 넓은 의미의 예술성을 지니면서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새로운 창작을 위한 원천이 되고 있다.

또 회화에 나타난 서민의식과 시대상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선조들의 미의식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신, 해학과 여유가 있는 삶의 자세 등을 풍속화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조선후기 풍속화는 미술사적 의미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 풍속화는 우리의 역사, 문화, 생활, 사상, 미의식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실적인 묘사와 기록, 해학적인 표현력 등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둘째, 최근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주변의 활기찬 삶의 모습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선조들이 지녔던 풍속화의 해학적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

셋째, 조선후기 풍속화에서 보여주는 일하는 모습이나 놀이의 모습을 통해 자발적 참여로 인한 즐거움을 지니는 바른 가치관 교육이 될 것이다.

넷째, 조선후기 풍속화의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풍속화를 제작해봄으로써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와 주변 삶의 모습에 대해 애정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우리 조상들의 삶의 정신을 학생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게 하여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Ⅲ.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 활동을 통한 미술 지도

지금까지 조선후기 풍속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학생들의 풍속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수업방법을 제시하여 이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해봄으로써 조선후기 풍속화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1. 현행 초등학교 학생들의 풍속화에 대한 사전조사

본 장에서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활용한 미술교육의 지도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

풍속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2012년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3~6학년 5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설문 조사 내용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활용한 미술교육의 지도방안을 반영하기 전 학생들의 풍속화에 대한 사전조사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화에 대한 인지도

순	설문	문항	통계	비율(%)
1	한국화를 알고 있나요?	① 알고 있다.	20	37
		② 모른다.	34	63
		계	54	100
2	한국화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54명 중 1번 문항에서 ①번에 답한 사람 20명에 한해)	① TV 또는 인터넷, 책을 통해 알았다.	10	50
		② 학교에서 배웠다.	5	25
		③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았다.	3	15
		④ 미술학원에서 배웠다.	2	10
		계	20	100

<표 1>에서 한국화를 알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63%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37%의 학생들은 ‘알고 있다’라고 답하여 한국화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화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 과반 수 이상이 학교 수업 이외에서 한국화를 접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표 2> 한국화와 서양화에 대한 선호도

순	설문	문항	통계	비율(%)
3	서양화와 한국화 중 어느 것이 더 익숙한가요?	① 서양화	24	44.4
		② 한국화	11	20.4
		③ 둘 다 아니다.	19	35.2
		계	54	100
4	서양화가 익숙하다면, 어떤 점이 그런가요? (54명 중 3번 문항에서 ①번에 답한 사람 24명에 한해)	① 많이 봤던 그림이다.	16	66.7
		②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재미있다.	3	12.5
		③ 이유가 없다.	5	20.8
		계	24	100
5	한국화가 익숙하다면, 어떤 점이 그런가요? (54명 중 3번 문항에서 ②번에 답한 사람 11명에 한해)	① 많이 봤던 그림이다.	4	36.4
		②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재미있다.	3	27.2
		③ 이유가 없다.	4	36.4
		계	11	100

<표 2>에서 ‘서양화와 한국화 중 어느 것을 더 그리고 싶은가?’에 대해 서양화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수치는 44.4%였고, 나머지 20.4%의 학생들만이 한국화를 선호하였으며, 학생들이 그리고 싶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보아 일상에서 서양미술이 더 접할 기회가 많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35.2%의 학생들이 ‘서양화와 한국화 모두 그리고 싶지 않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미술에 관심이 없는 학생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술교사는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표 3> 풍속화에 대한 인지도

순	설문	문항	통계	비율(%)
6	풍속화를 알고 있나요?	① 알고 있다.	19	35.2
		② 모른다.	35	64.8
		계	54	100

<표 3>에서는 풍속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지에 대해 64.8%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35.2%의 학생들만이 ‘알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이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풍속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풍속화 감상에 대한 조사

순	설문	문항	통계	비율(%)
7	풍속화 작품을 감상한 적이 있나요?	① 자주 본다.	4	7.4
		② 가끔 본적 있다.	31	57.4
		③ 본적 없다.	19	35.2
		계	54	100
8	풍속화 작품을 무엇을 통해 감상했나요? (54명 중 9번 문항에서 ①, ②번에 답한 사람 35명에 한해)	① 인터넷	11	31.4
		② 교과서	17	48.6
		③ 미술잡지 또는 미술관련 책	4	11.4
		④ 기타	3	8.6
		계	35	100
9	풍속화를 감상하는데 흥미가 있나요? (54명 중 9번 문항에서 ①, ②번에 답한 사람 35명에 한해)	① 흥미롭다.	20	57.1
		② 흥미롭지 않다.	15	42.9
		계	35	100

<표 4>에서 평소 풍속화 작품을 감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57.4%의 학생들이 ‘가끔 본적 있다’에 답하였고, 35.2%의 학생들이 ‘본적 없다’라고 하였으며 나머지 7.4%의 학생들은 ‘자주 본다’라고 답하였다. 즉 자주 본적은 없지만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풍속화를 감상한 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표 3>과 관련하여 많이 접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풍속화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풍속화를 감상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서와 인터넷을 통해 보았다고 답했으며, 풍속화를 감상하는데 ‘흥미롭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흥미롭지 않다’라는 답도 적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수업을 통한 한국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한국화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5> 풍속화에 대한 이해도

순	설문	문항	통계	비율(%)
10	풍속화 화가들의 이름에 <u>모두</u> 표시하세요. (중복가능)	① 윤두서()	1	·
		② 조영석()	0	
		③ 김홍도()	27	
		④ 신윤복()	11	
		⑤ 김득신()	4	
		⑥ 무 표시	27	
		계	·	·
11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은 어느 시대의 화가인가요?	① 삼국시대	1	1.9
		② 고려시대	2	3.7
		③ 조선시대	14	25.9
		④ 모른다.	37	68.5
		계	54	100

<표 5>에서 알고 있는 조선후기 풍속화 화가들을 고르는 질문에서는 2명 이상의 화가를 아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 학생들은 김홍도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신윤복이 높았고, 의외로 김득신을 알고 있는 학생도 4명이나 있었다. 윤두서를 알고 있는 학생은 1명에 불과했고, 조영석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질문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못한 학생들도 무려 27명으로 나타나 전체 인원의 50%가 조선후기 풍속화 화가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홍도와 신윤복, 김득신의 시대 인지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68.5%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답하였고, 25.9%의 학생들만 ‘조선시대’로 정답을 알고 있었으며, ‘삼국시대’, ‘고려시대’로 답한 학생도 4.6%였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풍속화 화가들의 시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풍속화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 한국화 수업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풍속화 제작 경험

순	설문	문항	통계	비율(%)
12	풍속화를 그려본 경험이 있나요?	① 있다.	9	16.7
		② 없다.	45	83.3
		계	54	100

<표 6>에서 풍속화를 그려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3.3%의 학생들이 ‘없다’라고 하였고, 단 16.7%의 학생들만이 그려본 적이 ‘있다’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 수업시간에 풍속화에 대한 표현활동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화 실기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7> 풍속화 미술 수업에 대한 참여 의사

순	설문	문항	통계	비율(%)
13	풍속화의 미술 수업을 원하는가요?	① 예.	38	70.4
		② 아니오.	16	29.6
		계	54	100

<표 7>에서 ‘풍속화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려보고 싶은가’에 대한 답으 70.4%의 학생들이 그려보고 싶다고 하였으며, 29.6%의 학생들은 그려보고 싶지 않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하는 풍속화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2)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위 설문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화에 대하여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한국화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 보다 서양화를 그리는 것을 선호하였다. 학생들이 그리고 싶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보아 일상에서 서양미술이 더 접할 기회가 많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풍속화를 알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풍속화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지만 풍속화 작품을 감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풍속화를 감상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풍속화를 감상하면서 풍속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그림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풍속화를 감상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서와 인터넷을 통해 보았다고 답했으며, 풍속화를 감상하는데 ‘흥미롭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흥미롭지 않다’라는 답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풍속화를 학교 교육에서 다루지고 있지만 단순히 삽화를 감상하는 것으로 그쳐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 풍속화가의 인지도에서도 대부분 김홍도를 알고 있었지만 과반수의 학생들이 아는 화가들이 없다고 답하였고 김홍도와 신윤복, 김득신 등이 조선시대 화가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 풍속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시급하다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풍속화를 그려본 경험이 없으며 풍속화 수업을 원한다고 답하여 학생들에게 풍속화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사를 통해 미술이 우리 주변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학교 미술 수업시간에서도 한국화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 지도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2. 지도 방법

미술의 이해는 “미술의 형식이나 시각적 현상, 미술문화, 표현주제와 재료, 기법 등에 대해 알고 느끼고 지각하는 것을 말하고, 미술의 표현은 자신의 내면을 재료와 기법을 통해 시각적, 조형적, 공간적으로 형상화하는 것”³⁴⁾이며, 미술 감

34) 이규선 외(1995), 「미술 교육학 개론」, 서울 : 서울교대 미술 교육 연구회, p.46.

상은 작품이나 조형물, 환경에 대해 그 가치를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종합적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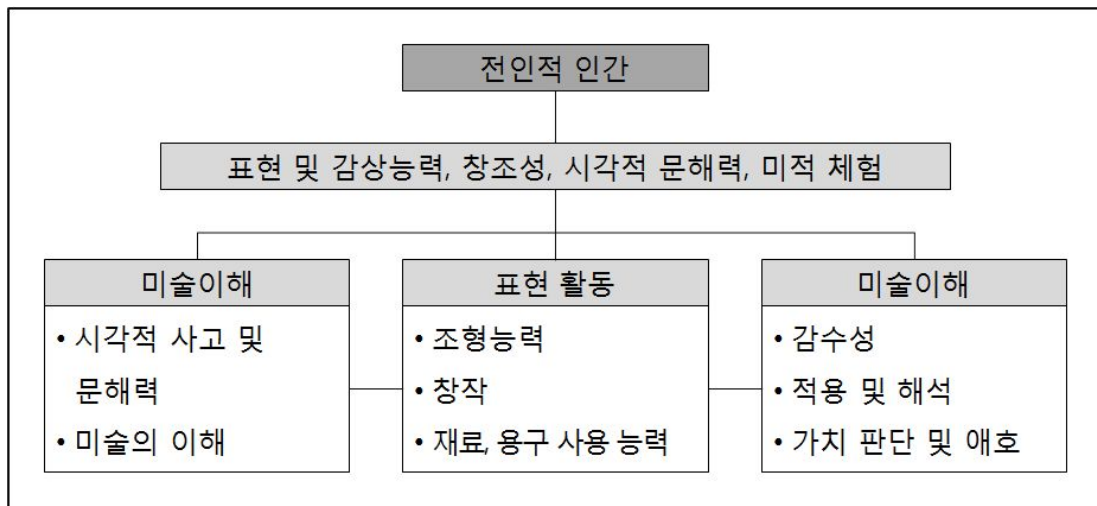
미술에서 이 세 활동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미술의 이해는 직접적인 표현과 작품의 감상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이해가 가능해진다. 또한 미술 표현 역시 미술의 이해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표현이 쉽게 이루어지고 작품의 표현을 통해서 감상의 효과 또한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미술교육은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시각적 조형물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심미적 태도와 표현력,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³⁵⁾을 길러준다.

따라서 풍속화의 이해와 표현, 감상 활동으로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며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해와 표현, 감상 등이 통합된 수업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활동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능력은 “미술 및 미술문화의 이해 능력과 창조적인 표현 능력과 미술 문화적 향수 능력, 미적 체험 능력”³⁶⁾이다. 이러한 미술 교육의 학습목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미술과 교육의 학습 목표 체계



출처: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p.35.

35) 노영자외(2011), 「초등학교 미술 5~6 지도서」, (주)교학사, p.7.

36)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p.35.

1) 이해활동

우리가 작품을 바라보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주제와 소재, 형식, 재료, 기법, 과정, 미술사, 미술 비평 등에서 발상 과정에 이르는 총체적인 이해를 뜻한다.

2009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내용을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나누고 있는데 “미적 체험에서의 이해교육은 자연이나 조형미에 대한 이해, 미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 타 영역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이해 등이다. 표현활동에서의 이해교육은 작품의 주제와 표현 목적에 대한 이해, 표현 재료와 표현방법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으며 감상활동에서의 이해교육은 미술품의 가치, 제작 배경, 시대별·양식별 특성에 대한 이해”³⁷⁾ 등으로 말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조선후기의 풍속화 작품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감상을 한 후 풍속화에 대한 개념과 기원, 시대적 배경, 의의를 이해한다. 또 각각의 선과 형태, 색채 등의 조형요소들을 분석하고 작품의 의미나 내용을 알기 위해 역사적인 배경이나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해야하며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지식의 폭을 더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고 작품 감상 후 표현 기법 탐색 시 다양한 방법의 기법을 탐색하여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활동과 감상활동, 표현활동은 작품제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표현활동

미술의 표현활동은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과정, 표현의 확장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주도적으로 나타내는 영역이다. 이 영역의 지도는 표현 매체와 방법에 대한 감각과 기능, 표현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해 나가는 조직적인 능력을 기르게 한다.”³⁸⁾ 이렇게 표현활동은 학생이 직접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해내는 과정이므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위해 다양한 표현방법과 용구의 사용법을 알려주어 기법, 조형의 원리, 재료 등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한다.

37) 임정기 외(2006), 전계서, p.176. 요약.

38)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국경도서편찬위원회(2010), 「미술 3, 4학년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pp.7~8.

이해활동에서 배운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구도와 형태표현 방법, 기법, 색채 등을 실제 자신의 작품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의 전통적인 표현기법을 단순히 모방하기보다는 옛 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정신과 전통적인 기법을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감각을 살릴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

3) 감상활동

미술 감상은 미술작품이나 조형물, 자연물에 대해 미적 가치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미술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술 감상은 “감상자가 작가의 작품에 부여했던 감정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을 때 작가의 조형의식에 버금할 수 있고”³⁹⁾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초등학교 미술교과에서의 미술 감상활동은 “미술표현 학습 시간의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서 각각 감상활동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제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감상 위주의 학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감상활동을 통하여”⁴⁰⁾ 학생들은 미술의 본질적인 측면을 알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미술표현 기법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풍속화의 감상활동은 학생들이 작품이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감상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감상 자료가 준비된 후에는 이를 먼저 분석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안을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감상활동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화집과 같은 도서를 이용하거나 실물화상기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표현활동으로 모사를 했다면 학생 본인의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며 감상해야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원작에 대한 기법과 내용, 양식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은 친구들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을 비교하는 감상이 필요하다. 서로의

39) 전성수(2000), 「표현·감상과 통합된 이해지도의 관점과 실제」, 한국미술교육학회, p.84.

40) 노영자외(2011), 「초등학교 미술 5~6 지도서」, (주)교학사, p.8.

작품을 비교하면서 주제 표현과 표현 기법의 다양성 등을 토론할 수 있으며 친구들의 작품 감상을 통해 그들의 내면세계나 표현의지를 이해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보다 성숙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3.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활용한 미술지도 계획

초등학교에서의 한국화 교육은 우리 조상의 미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 사상과 자긍심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학습의 대상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표현 기법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적인 표현력의 확대와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데 의의를 두었다. 따라서 한국화 교육의 지도는 학생들이 흥미를 지니게 하고, 다양한 재료를 접하면서 기법과 표현을 자유롭게 하여 한국화에 대한 친근감과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조선후기 풍속화를 감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1) 수업계획

- (1)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미술교실 3~6학년 계 54명
- (2) 적용 기간: 2012년 3월 12일 ~ 4월 18일
- (3) 적용 방법: 6차시로 구성된 수업을 1주일에 1일 씩 6주에 걸쳐 지도.

2) 지도계획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선후기 풍속화에 관한 수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풍속화의 감상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풍속화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 제안하는 교수 학습 과정안을 통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6차시의 지도 계획은 <표 8>과 같다.

<표 8> 조선후기 풍속화 지도 계획

차시	학습 주제	학습 내용
1	풍속화 모사하기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의 개념과 특징 이해, 작품 감상 • 자신이 선택한 풍속화를 모사하면서 작품의 내용, 방법, 재료 등을 알아본다.
2	풍속화 모사하기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 작품 감상 • 자신의 선택한 풍속화를 한지를 이용하여 모사한다. (한지 찢어 붙이기) • 다른 학생들과 모사한 작품을 비교 감상하며 이야기하기
3	풍속화 책갈피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 작품 감상 • 자신이 마음에 드는 풍속화의 일부분을 그려서 책갈피를 만든다. • 책갈피를 완성한 후 다른 학생들과 비교 감상
4	풍속화 이어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의 일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상상하여 그리기 • 원작과 비교하며 감상하기 • 다른 학생들과 작품을 비교 감상하며 이야기하기
5	풍속화 전·후 장면 상상하여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선택한 풍속화의 전·후 장면 상상하여 그리기 • 풍속화 작품 감상 • 다른 학생들과 작품을 비교 감상하며 이야기하기
6	오늘의 풍속화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학교 학생의 ‘오늘의 풍속화’ 감상하기 • 자신의 일상이 담긴 ‘오늘의 풍속화’ 그리기 • 다른 학생들과 작품을 비교 감상하며 이야기하기

4.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활용한 미술지도 실제

효과적인 풍속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과정안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시켜 표현활동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풍속화를 단지 옛 그림으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 풍속화 모사하기 I (1차시)

(1) 단원의 개관

조선후기 풍속화의 감상을 통해 풍속화의 개념, 특징, 내용, 작가, 표현기법,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 후 학생들이 선택한 풍속화를 모사해보면서 작품의 내용, 방법, 재료 등을 배울 수 있다.

(2) 학습목표

- 조선후기 풍속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풍속화를 모사하는 것을 통하여 그림의 내용, 방법, 재료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3) 수업자료

다음 <그림 22 ~ 24>는 ‘풍속화 모사하기 I (1차시)’의 수업 자료이다.



<그림 22> 김홍도 「활쏘기」



<그림 23> 김홍도 「서당」



<그림 24> 김득신 「야묘도추」

김홍도의 「활쏘기」, <그림 22>는 활을 쏘기 전에 인물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인물들의 표정과 동작을 통해 그들의 심정을 엿볼 수 있으며, 우리

나라가 전통적으로 활을 사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김홍도의 「서당」, <그림 23>은 훈장에게 꾸중을 듣는 아이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 작품 역시 배경은 생략되었고 인물들이 동작과 표정만으로 적절한 화면 구성을 이루고 있다. 현재의 교실 풍경과 비교하며 과거의 수업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김득신의 「야묘도추」, <그림 24>는 김득신의 해학성이나 독창성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으로 마당에서 있던 병아리를 물고 뒤돌아보며 달아나는 고양이 주인이 담뱃대로 고양이를 잡으려다가 마루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급박한 순간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였으며 풍속화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4) 교수 학습 과정안

본 수업은 조선후기 풍속화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특징을 이해하고, 화선지와 붓펜, 물감을 가지고 풍속화 작품을 모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작품의 내용과 방법, 재료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며 수업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풍속화 모사하기 I (1차시)

단계	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준비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 확인	◎ 동기유발 : ‘바람의 화원’ 드라마 동영상보기 ●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를 그리는 모습 살피기 ● 그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살피기 ● 지금까지 보았던 그림들과 다른 점 이야기하기 ◎ 학습목표 인지시키기 - 풍속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모사 활동을 하며 그림의 내용, 방법, 재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동영상 (바람의 화원) ※익숙하지 않은 모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
이해	주제설정 이미지 형성	◎ 풍속화 참고 작품 감상하기 ● 김득신의 「야묘도추」 특징 찾기 ● 김홍도의 「활쏘기」, 「서당」 특징 찾기 ◎ 풍속화 이해하기 ● 풍속화 작가와 작품의 표현기법, 내용, 인물들의 동작, 신분 등을 설명한다. ● 작품에 쓰인 재료에 대해 설명하고, 재료를 이용하여 시범을 보인다.	▶PPT (풍속화 작품) ※사용해보지 않은 재료를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붓펜을 이용한 편지글을 제시한다.

	기법탐색	<p>◎ 모사 기법 탐색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풍속화 그림 선택하기 • 그림의 특징 살펴보고 적당한 굵기의 붓펜 선택하기 • 모사의 방법 알아보기 • 교사의 시범대로 여분의 화선지에 붓펜 연습하기 	<p>▶교사 : 밑그림만 그려진 풍속화 그림</p> <p>▶학생 : 화선지 붓펜, 물감</p>
표현	작품제작 활동	<p>◎ 풍속화 모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른 그림 위에 화선지를 놓고 모사하기 • 모사를 하면서 그림 속의 내용과 인물들의 역할이나 상황을 관찰하고 추측해보기 • 본래의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 그려보기 • 채색하기 <p>※교사는 궤간순시를 통해 독자적인 표현을 하는 학생의 작품을 전체에게 보여주며 동기를 부여한다.</p>	<p>※ 재미있고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p>
정리	<p>감상활동</p> <p>정리활동</p> <p>차시예고</p>	<p>◎ 모사한 작품 감상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각자 그린 그림을 원작과 비교하여 감상해 보는 시간 갖기 • 친구들의 작품도 감상하고 느낀 점 서로 이야기하기 • 모사한 그림과 원작을 비교 감상하기 • 모사하며 어려운 점 말해보기 • 새롭게 알게 된 점 이야기하기 <p>◎ 정리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주고 미술사적 가치를 설명한다. <p>◎ 차시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 모사하기 II <p>- 재료 : 한지, 풀 가져오기</p>	<p>▶ 학생들 작품</p> <p>※ 서로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p>

(5) 수업 결과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표현보다는 풍속화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 풍속화의 기법과 표현에 다가서게 하였고 모사본을 화선지 밑에 두어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다음 <그림 25 ~ 27>은 학생들이 모사한 작품이다. <그림 25>는 김홍도의 「서당」을 모사한 것으로 학생은 부드러운 붓펜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지 않아 그리는 데 어려워했지만 훈장님과 아이들의 다양한 표정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또한 김홍도의 특징인 여백의 표현을 바탕이 허전하다며 색을 칠해 주어 단순히 원작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을 표현하였다.

<그림 26>은 김홍도의 「활쏘기」를 모사한 것으로 기존에는 한국화가 먹으로만 표현이 되어 단조롭고 어둡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채색을 직접 해봄으로써 다양한 한국화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27>은 김득신의 「야묘도추」를 모사한 것으로 작품제작을 하면서 붓펜의 부드러움에 흥미를 느꼈으며 수채화 붓과는 다른 특징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화선지 위에 모필의 표현이 익숙지가 않아서 붓의 강약 조절을 힘들어 하고 인물과 사물의 필선이 나오지 않아 붓펜으로 대체하였다. 붓펜 역시 부드러워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지만 곧 적응하며 모사를 하였다.

이번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풍속화를 모사해봄으로써 풍속화에 대한 내용과 방법, 재료, 표현기법 등을 배울 수 있었으며 한국화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2) 풍속화 모사하기Ⅱ(2차시)

(1) 단원의 개관

조선후기 풍속화의 감상을 통해 신윤복의 작품에 대한 특징, 내용, 표현기법을 이해하였다. 그 중 자신이 선택한 풍속화를 한지 찢어 붙이기와 그림을 병행하여 표현하였다.

(2) 학습목표

- 조선후기 풍속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풍속화의 모사를 통하여 작품의 내용과 특징을 배울 수 있다.

(3) 수업자료

다음 <그림 28 ~ 32>는 ‘풍속화 모사하기Ⅱ(2차시)’의 수업 자료이다.



<그림 28> 「전모 쓴 여인」



<그림 29> 「어물장수」



<그림 30> 「장옷 입은 여인」



<그림 31> 「쌍검대무」



<그림 32> 「연소담청」

신윤복은 관습이나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당시 사회에서 꺼려하던 소재들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회화적 표현으로 나타냈다.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성을 주제로 하였으며 짙은 연지, 담홍색, 자주, 보라, 진황색 등 강한 색을 사용하여 당시의 화가들이 기피해 왔던 채색이 지니는 본연의 색감을 표현하고 있다.

비단과 종이에 그린 「전모 쓴 여인」, <그림 28>, 「어물장수」, <그림 29>, 「장옷 입은 여인」, <그림 30>은 배경을 생략한 점이 김홍도의 「풍속화첩」의 방식과 유사하다.

「쌍검대무」, <그림 31>은 검을 들고 춤추는 여인들과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사용한 색은 주제가 되는 두 여인의 옷자락이 청색과 적색의 강렬한 대비로 긴장감과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소담청」, <그림 32>는 ‘짧은 선비들이 푸른 새싹을 밟는다.’는 뜻으로 조선 후기 양반들이 종과 기생과 함께 산천을 찾아 즐기고 돌아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4) 교수학습과정안

본 수업은 조선후기 풍속화의 작가인 신윤복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특징을 이해하고 풍속화 작품을 한지 찢어 붙이기를 이용하여 모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작품의 내용과 방법, 재료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며 수업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풍속화 모사하기 II (2차시)

단계	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준비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 확인	◎ 동기유발 : 전시 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참고작품과 학생 작품 비교하며 살펴보기 재미있게 표현한 점 찾기 ◎ 학습목표 인지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속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모사 활동을 통해 그림의 내용, 방법, 재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전시관 작품 (표현 방법이 특이한 것)
이해	주제설정	◎ 풍속화 참고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윤복의 「전모 쓴 여인」, 「어물장수」, 「장옷 입은 여인」, 「쌍검대무」, 「연소담청」 특징 찾기 	▶ PPT(신윤복: 전모 쓴 여인, 어물장수, 장옷)

	이미지 형성	◎ 풍속화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 작가와 작품의 표현기법, 내용, 인물들의 동작, 신분 등 알아보기 ● 작품에 나타난 색에 대해 이야기하기 	입은 여인, 쌍검대무, 연소담청)
	기법탐색	◎ 모사 기법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풍속화 그림 선택하기 ● 그림의 특징 살펴보고 필요한 한지 선택하기 ● 모사할 부분 선택하기 ● 한지의 특징 알기 ● 찢어 붙이는 여러 가지 방법 탐색하기 	▶ 교사 : 참고작품 ▶ 학생 : 풀도화지, 여러 가지 색의 한지
표현	작품제작 활동	◎ 풍속화 모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한 그림 도화지에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또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리기 ● 모사를 하면서 그림 속의 내용과 인물들의 역할이나 상황을 관찰하고 추측해보기 ● 한지 찢어 붙이기 	※ 학생들 수준에 따라 교사가 제시한 참고작품 중 필요한 부분만을 그리도록 하며 그리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은 교사가 스케치는 도움을 주도록 한다.
정리	감상활동 정리활동 차시예고	◎ 모사한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각자 그린 그림을 원작과 비교하여 감상해 보는 시간 갖기 ● 친구들의 작품도 감상하고 느낀 점 서로 이야기하기 ● 모사한 그림과 원작과 차이점 찾기 ● 모사하며 어려운 점과 새로 알게 된 점 이야기하기 ◎ 정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주고 미술사적 가치를 설명한다. ◎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 책갈피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마음에 드는 풍속화의 일부분 생각해오기 	▶ 학생들 작품 ※ 서로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5) 수업 결과

다음 <그림 33 ~ 37>은 학생들이 신윤복의 「전모 쓴 여인」, 「어물장수」, 「장옷 입은 여인」, 「쌍검대무」, 「연소담청」 작품을 모사한 것이다. 신윤복의 그림은 다른 풍속화보다 화려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의 상황과 배경이 비슷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조선시대 때 여성이 그림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신윤복이 여성 작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그리기를 주로 했던 학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폴라주 기법 도입함으로써 색감의 아름다움과 조선시대 여성들의 복식을 간접적으로나마 일깨워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업은 여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활동이라 남학생들은 지루해하기도 하고 어려워했으나 여학생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 작품을 남겼다. 이를 통해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표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그림 37>

3) 풍속화 책갈피 만들기(3차시)

(1) 단원의 개관

조선후기 풍속화의 감상을 통해 그 중 자신이 마음에 드는 풍속화의 한 장면을 선택하여 책갈피로 만들어 본다.

(2) 학습목표

- 조선후기 풍속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풍속화 작품 속의 인물이 되어볼 수 있다.
- 조선후기 풍속화 책갈피를 만들어 볼 수 있다.

(3) 교수학습과정안

본 수업은 조선후기 풍속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장면을 선택하여 표현하며 완성한 작품은 책갈피로 만들 것이다. 수업 후의 완성한 책갈피는 평소에 책을 볼 때 이용할 수도 있으며 수업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조선후기 풍속화 책갈피 만들기(3차시)

단계	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준비	학습동기 유발 학습목표 확인	◎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모양의 책갈피 보여주기 • 책갈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 학습목표 인지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풍속화의 인물을 그려 책갈피를 만들 수 있다. 	▶ 여러 가지 책갈피
이해	주제설정	◎ 조선후기 참고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에 배웠던 풍속화의 개념과 특징들을 서로 이야기하기 • 여러 종류의 풍속화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윤복의 「쌍검대무」에서 재미있는 부분 찾기 - 김홍도의 「벼타작」의 일하는 사람들의 몸짓 살피기 	▶ 코딩한 참고작품 1-2차시에 그린 학생 작품 ▶ PPT (풍속화 그림)

	이미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홍도의 「기와이기」와 「우물가」 인물의 모습 특징 살피기 ◎ 풍속화 이해하기 • 풍속화 작가와 작품의 표현기법, 내용, 인물들의 동작, 신분 등 알아보기 • 각 작품 교사의 설명 	
	기법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사 기법 탐색하기 • 책갈피의 특징 알기 • 책갈피 만드는 방법 탐색하기 	
표현	작품 제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 책갈피 만들기 • 참고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골라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만을 선택하여 한지에 그리기 - 네임펜으로 따라 그리기 - 색연필로 색칠하기 - 한지를 표지에 붙이기 ☞ 완성한 작품은 코팅을 하고 구멍을 만들어 줄을 끼워 넣는다. 	<p>▶표지, 한지 네임펜, 풀 색연필</p> <p>※부분만을 선택하여 그려야 책갈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잘 이해시킨다.</p>
정리	감상활동 정리활동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 책갈피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서로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비교하며 감상하기 • 친구들의 작품도 감상하고 느낀 점 서로 이야기하기 • 모사한 그림과 원작과는 차이점 찾기 • 모사하며 어려운 점 말해보기 • 새로 알게 된 점 말해 보기 ◎ 정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주고 미술사적 가치를 설명한다. ◎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 이어그리기 	<p>▶ 학생들 작품</p> <p>※ 서로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p>

(4) 수업 결과

이번 수업은 조선후기 풍속화 작품 중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장면을 골라 책갈피를 만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신윤복의 「쌍검대부」의 장면을 그렸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우물가」와 「벼타작」, 「기와의기」 등 김홍도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택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장면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작품에 대한 이해가 쉽게 이루어졌으며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책갈피를 만드는 생각에 표현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또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넣고 싶은 문구나 자신의 이름을 도장처럼 그려 넣게 함으로써 작품이 완성되면 전각을 찍어 낙관을 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다. 다음은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이다.



<그림 38>

<그림 39>

<그림 40>

<그림 41>

<그림 42>

다음은 학생들의 작품 설명이다.

<그림 38>의 학생은 검을 가지고 춤을 추는 무녀의 애환을 그림에 담고 싶어 했으며 글귀와 이름, 전각을 그리고 나니 책갈피가 더 멋있어졌다고 하였다.

<그림 39>의 학생은 작품에서 농민들이 웃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양반에게 혼나서 울상을 지을 것 같아 슬픈 표정을 그렸다고 한다.

<그림 40>의 학생은 벼를 지게에 짊어지고 있는 농민을 그렸다. 무겁지만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항상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림 41>의 학생은 김홍도의 「벼타작」을 작은 종이에 그리려고 하니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모사본 없이 그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다.

<그림 42>의 학생은 건물을 지으려면 덩치가 커야할 것 같아서 크게 그렸으며, 전각을 그리기 전에는 그림이 허전해 보였는데 전각을 그리고 나니 멋진 작품이 되었다고 하였다.

몇 명의 학생들은 모사본 없이 그리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 수업 때 두 번에 걸쳐 모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모사본이 없어도 어렵지 않게 작품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책갈피로 자신이 작품이 완성되자 무척이나 뿌듯해 하였다. 또한 전에 모사를 할 때에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내용을 이해하고 기법을 답습해보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 스스로 작품의 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며 즐겁게 작품을 표현하였다.

4) 풍속화 이어그리기(4차시)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학생들이 조선후기 풍속화의 한 부분을 도화지에 붙인 후 나머지 부분은 상상하여 표현함으로써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2) 학습목표

- 조선후기 풍속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풍속화의 모사를 통하여 그림의 내용, 방법, 재료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3) 수업자료

다음 <그림 43>은 ‘풍속화 이어그리기(4차시)’의 수업 자료이다.



<그림 43> 윤두서 「나물캐기」

윤두서의 「나물 캐기」는 봄날에 나물을 캐는 두 아낙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두 여인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속치마가 보일 정도로 치마를 걷어 올려 일하기 편한 복장을 하고 있다.

또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에 여인들이 입었던 짧아진 저고리모양과 비교되며 작품이 그려진 당시에는 저고리가 길었던 것을 알 수 있다.

(5) 수업 결과

학생들이 조선후기 풍속화 작품 중 윤두서의 「나물 캐는 두 여인」의 부분을 도화지에 붙인 후 나머지 부분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활동이 끝난 후에야 원작을 보여주었고 학생들에게 원작과 자신의 작품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윤두서의 작품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몰랐으며 표현활동을 시작할 때 원작을 먼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장면이 묘사되었다.

또한 작품을 완성한 후에 원작과 비교하며 감상을 하고 원작에 대한 설명을 하자 학생들은 자신의 그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44>



<그림 45>



<그림 46>



<그림 47>



<그림 48>



<그림 49>

다음은 학생들의 작품 설명이다.

<그림 44>의 학생은 시험을 못 봐서 엄마에게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림 45>의 학생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할머니께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림 46>의 학생은 할머니와 놀이터에 가서 모래에 그림을 그리며 노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림 47>의 학생은 방학 때 시골로 놀러갔는데 할머니께서 밭에 힘들게 일

을 하시자 동생과 함께 새참을 들고 도와드리러 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림 48>의 학생은 할머니가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길을 걷는 모습을 그렸다.

<그림 49>의 학생은 마법사 할머니가 지팡이로 마법을 부리며 동굴시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동안 모사하는 수업에서는 원작을 따라 그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지만 이번 수업에서 작품의 일부분이 주어지고 나머지 부분을 상상하여 표현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상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5) 풍속화 전·후 장면 상상하여 그리기(5차시)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조선후기 풍속화의 전·후 장면을 상상하여 그려봄으로써 재미있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2) 학습목표

- 조선후기 풍속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풍속화를 전·후 장면을 상상해 봄으로써 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교수학습과정안

본 수업은 조선후기 풍속화 작품 중 자신이 선택한 작품의 전·후 장면을 상상하여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완성된 후에 친구들과의 감상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수업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풍속화 전·후 장면 상상하여 그리기(5차시)

단계	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준비	학습동기 유발	◎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내용 알아보기 • 상을 받은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번 그림을 잘 그려서 대회에 입상 • 상을 받은 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야기하기 	▶ 동영상(상을 받는 장면)

	학습목표 확인	<p>◎ 학습목표 인지시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의 한 부분을 도화지에 붙인 후 나머지 부분은 상상하여 그릴 수 있다. 	
이해	주제설정 이미지 형성 기법탐색	<p>◎ 조선후기 참고 작품 감상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묘도추」 작품의 특징 찾기 • 「송화기승」 작품의 특징 찾기 • 「활쏘기」 작품의 특징 찾기 • 「서당」 작품의 특징 찾기 • 「씨름」 작품의 특징 찾기 • 「타작」 작품의 특징 찾기 <p>◎ 풍속화 이해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연관 지어서 풍속화의 정의, 특징, 내용, 표현기법, 시대적 배경 설명하기 -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 받고 설명하기 <p>◎ 기법 탐색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학습지를 보며 그림의 전 장면 상상하여 보기 • 주어진 학습지를 보며 다음 장면 상상하여 보기 	<p>▶참고작품 (김득신: 야묘도추, 송화기승, 김홍도: 활쏘기, 서당, 씨름, 타작)</p> <p>※일반적인 발표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분위기를 유도해준다.</p>
표현	작품제작 활동	<p>◎ 풍속화 이어 그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작품 중에서 그림을 선택하여 전후 장면을 상상하여 그리기 	<p>▶학습지 이용 (전 장면 1장, 후 장면 1장) 4B연필, 싸인펜 그림물감, 등</p>
정리	감상활동 정리활동 차시예고	<p>◎ 전후 장면 설명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본과 자신이 그린 전후 장면을 연결하여 설명하기 • 친구들 작품도 감상하고 느낀점을 이야기하기 <p>◎ 정리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미술사적 가치를 설명한다. <p>◎ 차시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날의 풍속화 그리기 	<p>▶ 학생들 작품</p> <p>※원본과 전,후 장면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p>

(4) 수업 결과

조선후기 풍속화 작품 중 자신이 선택한 작품의 전·후 장면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김홍도의 「활쏘기」, 「씨름」, 「서당」, 「벼타작」 과 김득신의 「야묘도추」, 「송화기승」 등 다양한 작품들을 그린 가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야기 연결이 쉬운 김홍도의 「서당」을 많이 그렸다. 다음 <그림 50 ~ 52>는 학생들의 작품과 설명이다.



<그림 50> 김홍도 「서당」의 전·후 장면

<그림 50>의 학생은 아이가 수업시간에 졸다가 훈장님에게 매를 맞아 우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집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부모님께 또 혼나고 있고 옆에서 할머니는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고 있다.



<그림 51> 김홍도 「씨름」의 전·후 장면

<그림 51>의 학생은 씨름을 하기 전에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경기가 시작 되자 치열한 승부를 보이는 장면을 표현하였다. 그 후 한 명은 승리하여 당당히 포즈를 취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저서 엎드려 울고 있다.



<그림 52> 김득신 「송화기승」의 전·후 장면

<그림 52>의 학생은 스님들이 장기를 두려고 장기관과 장기알을 준비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두명의 스님은 장기를 두고 있으며 한명의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결국 한 스님이 승리하여 만세를 외치고 있고, 승부에서 진 스님은 화가 났는지 인상을 쓰며 장기알 함을 던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작품의 전·후 장면을 유추하여 그리는 것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학생들은 상상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였다. 그래서 그리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으며 그로 인해 전 수업들에 비해 작품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다.

비록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들이 표현 되었지만 이러한 미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사고의 틀을 넓힐 수 있었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확장시킬 수 있었다.

6) 오늘날의 풍속화 그리기(6차시)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삶의 모습을 표현한 풍속화를 감상하면서 그 시대의 삶의 모습과 특징을 알아보고 작품 속에 담긴 역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의 생활모습과 시대적 상황을 소재로 선택하여 표현한 기회를 갖고자 한다.


(2) 학습목표

- 풍속화 감상활동을 통한 풍속화의 개념, 의의, 시대적 배경과 발달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
- 풍속화의 정신세계를 이어받아 오늘날에 적용하여 주변의 일상적 생활을 소재로 오늘날의 풍속화를 제작해볼 수 있다.
- 풍속화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삶의 진정한 의미와 조상들의 슬기, 해학, 멋의 미학에 접근해볼 수 있다.

(3) 교수학습과정안

본 수업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을 토대로 오늘날의 풍속화를 그려볼 것이다. 완성된 후에는 친구들과의 감상을 통해 작품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하고 수업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오늘날의 풍속화 그리기(6차시)

단계	과정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준비	<p>학습동기 유발</p> <p>학습목표 확인</p>	<p>◎ 동기유발 : 서은애의 「긴 오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아보기 <p>◎ 학습목표 인지시키기 -주변의 일상적 생활을 소재로 오늘날의 풍속화를 그릴 수 있다.</p>  <p><그림 53></p>	<p>▶PPT(서은애 작가의 '긴 오후')</p>
이해	<p>주제설정</p> <p>이미지 형성</p>	<p>◎ 풍속화 참고 작품 감상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을 보며 다른 그림과 다른 점 찾기 • 지금까지 보았던 풍속화와 비슷한 점 찾기 • 지금까지 보았던 풍속화와 다른 점 찾기 • 오늘날의 그림과 비슷한 점 찾기 <p>◎ 풍속화 이해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소재, 재료, 기법 알아보기 • 작품에 나타난 느낌 이야기하기 	<p>▶PPT(서은애 작가의 '긴 오후')</p> <p>※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임을 알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그린다면 어떤 점을 바꾸고 싶은지 이야기하기 	
	기법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법 탐색하기 • 그리고 싶은 것 구상하기 • 스케치하기 • 채색하기 	
표현	작품제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속화그리기 • 주제, 소재, 재료, 기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리기 •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이 되도록 스케치하고 친구와 비교한 후 채색하기 	▶도화지, 4B 연필, 물감, 붓 파レット, 물통
정리	감상활동 정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작품 감상하기 • 학생들이 그린 작품을 각자 설명하고 느낀점을 발표하기 • 친구들의 작품도 감상하고 느낀 점 서로 이야기하기 • 친구들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재미있게 표현된 부분을 함께 찾아보기 • 자기 작품에서 고치고 싶은 점 말해 보기 ◎ 정리활동 •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상들이 작품의 소재가 되며 그것이 바로 풍속화임을 이해시키기 • 풍속화의 가치를 알고, 이러한 정신세계를 계승·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그동안 배운 풍속화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지와 감상문을 작성하기 	▶ 학생들 작품 ※일반적인 발표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질문지와 감상지

(4) 수업 결과

다음은 학생들이 오늘날의 풍속화를 직접 그려본 것이다. 그동안 모사하기, 전·후 장면 상상하여 그리기를 통하여 작품을 제작해 봐서 그런지 오늘날의 풍속화를 그릴 때에는 좀 더 쉽게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수업에 대한 재미와 성취감, 자신감을 느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다음은 학생들이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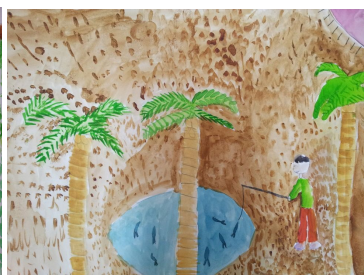
<그림 55>



<그림 56>



<그림 57>



<그림 58>



<그림 59>

다음은 학생들의 작품 설명이다.

<그림 54>의 학생은 수업시간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조영석 작품의 일렬횡대식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55>의 학생은 지팡이를 짚고 등산을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너무 힘들어서 땀도 나고 얼굴에 찡그린 표정을 그림으로써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그림 56>의 학생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인물들의 표정이 재미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화면의 구성 또한 독특하게 표현되었다.

<그림 57>의 학생은 김홍도의 「씨름」과 비슷한 소재로 축구경기를 관람하

는 모습을 그렸다. 다만 「씨름」에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표현되었지만 여기서는 형태가 거의 없으며, 골을 넣은 순간의 선수들의 표정이 재미있게 표현되었다.

<그림 58>의 학생은 뜨거운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의 모습들을 그렸다면 이 학생은 만약 사막에 간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였다.

<그림 59>의 학생은 방과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낚씨가 더워 얼굴이 까맣게 탄 것을 표현하여 작품에 재미를 더하고 있다.

오늘날의 풍속화 그리기 제작을 통해 무심히 지나치던 평범한 일상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며 진솔한 삶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주변의 모습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5. 지도 적용 후 학생들의 인식 조사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활용한 이해와 표현, 감상 활동 등이 통합된 수업모형을 제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시킨 후 학생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5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설문 조사 내용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활용한 미술교육의 지도방안을 반영한 후 학생들의 풍속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5> 풍속화에 대한 인지도

순	설문	문항	통계	비율(%)
1	풍속화를 알게 되었나요?	① 그렇다.	51	94.4
		② 아니다.	3	5.6
		계	54	100

<표 15>에서는 풍속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지에 대해 94.4%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답하였고 5.6%의 학생들만이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수업 전에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답한 것에 비해 수업 후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풍속화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풍속화에 대한 이해도

순	설문	문항	통계	비율(%)
2	풍속화 화가들의 이름에 모두 표시하세요. (중복가능)	① 윤두서()	19	·
		② 조영석()	4	
		③ 김홍도()	54	
		④ 신윤복()	52	
		⑤ 김득신()	25	
		⑥ 무 표시	0	
		계	·	·
3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은 어느 시대의 화가인가요?	① 삼국시대	0	0
		② 고려시대	0	0
		③ 조선시대	52	96.3
		④ 모른다.	2	3.7
		계	54	100

<표 16>에서 알고 있는 조선후기 풍속화 화가들을 고르는 질문에서는 수업 전과 비교하여 풍속화 화가들을 많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김홍도와 신윤복을 알게 되었으며 김득신과 윤두서를 아는 학생도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조영석에 대해서는 4명만이 알고 있어 풍속화 감상 지도가 부족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김홍도와 신윤복, 김득신의 시대인지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96.3%의 학생들이 ‘조선시대’라고 답하여 모든 학생들이 풍속화 화가들의 시대를 제대로 배웠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풍속화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이 풍속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7> 풍속화 표현활동 선호도

순	설문	문항	통계	비율(%)
4	수업동안 다양한 표현활동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흥미로웠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① 모사하기 I (붓펜)	11	20.4
		② 모사하기 II(한지)	14	25.9
		③ 책갈피 만들기	19	35.2
		④ 이어그리기	5	9.2
		⑤ 전·후 장면 상상하여 그리기	2	3.7
		⑥ 오늘의 풍속화 그리기	3	5.6
계			54	100

<표 17>에서는 6차시에 걸쳐 진행된 표현활동 중 가장 흥미로웠던 활동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35.2%의 학생들이 풍속화 책갈피 만들기를 선호하였으며 25.9%의 학생들은 모사하기 II(한지 찢어 붙이기)를, 20.4%의 학생들은 모사하기 I(붓펜을 이용한 모사하기)을 선호하였다. 반면에 풍속화 이어그리기는 9.2%, 오늘의 풍속화 그리기는 5.6%, 풍속화 전·후 장면 상상하여 그리기는 3.7%의 학생들만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은 단순히 그리는 작업 보다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표현방법에 흥미를 느꼈으며 이로 인해 풍속화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작용을 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해 주는 활동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나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한 활동은 어려워하였다.

이것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표 18> 풍속화 미술 수업에 대한 평가

순	설문	문항	통계	비율(%)
5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풍속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① 많은 도움이 되었다..	52	96.3
		②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2	3.7
계			54	100

<표 18>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풍속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으로 96.3%의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하

였으며 3.7%의 학생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미술 수업 후 풍속화에 대한 생각

순	설문	문항	통계	비율(%)
6	수업 후 풍속화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① 풍속화를 새롭게 감상하게 되었고 거리감이 좁혀지며 친숙해졌다.	48	88.9
		②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다.	4	7.4
		③ 잘 모르겠다.	2	3.7
		계	54	100

<표 19>에서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 수업 후 풍속화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89.9%의 학생들은 ‘풍속화를 새롭게 감상하게 되었고 거리감이 좁혀지며 친숙해졌다’라고 답하였으며 7.4%의 학생들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였고 3.7%의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 전에 풍속화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쳤지만 수업 후에는 충분한 이해와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풍속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어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표 20> 한국화에 대한 관심도

순	설문	문항	통계	비율(%)
7	한국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나요?	① 그렇다.	49	90.7
		② 아니다.	5	9.3
		계	54	100

<표 20>에서 한국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지에 대해 90.7%의 학생들은 ‘그렇다’라고 답하였고 9.3%의 학생들은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수업 전에 학생들이 한국화에 익숙지 않아 관심이 없었던 것에 비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수업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통미술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위 설문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풍속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지에 대해 수업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학생들이 풍속화에 대해 이해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풍속화 화가들이 살았던 시대와 작가들의 이름을 전에 비해 많이 알고 있음이 나타나 풍속화에 대한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6차시에 걸쳐 진행된 수업은 많은 학생들이 만족스러워 했으며, 표현활동 중 가장 흥미로웠던 활동은 풍속화 책갈피 만들기, 모사하기Ⅱ(한지 찢어 붙이기), 모사하기 I(붓펜을 이용한 모사하기) 등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단순히 그리는 작업 보다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표현활동에 흥미를 느껴 적극적인 자세로 작업을 몰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풍속화 이어그리거나 오늘의 풍속화 그리기, 풍속화 전·후 상상하여 그리기는 낮은 수치를 보여 학생들이 스스로 상상을 하고 표현해야 하는 활동은 어려워하며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연구하여 흥미를 가지고 표현에 임할 수 있도록 수업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 전에 풍속화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쳤지만 수업 후에는 충분한 이해와 다양한 표현활동으로 인해 풍속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어렵다고만 생각하던 한국화에 대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되었을 때 전통미술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교육적 기대 효과

조선후기 풍속화의 이해와 표현, 감상 등이 통합된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얻은 교육적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과 표현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존의 어려워했던 한국화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둘째, 조선후기 풍속화는 그 시대의 역사, 문화, 생활, 사상, 미의식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 그 시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조상들의 생활상이나 해학의 미, 정신성 등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셋째, 조선후기 풍속화의 표현활동을 통해 평소 다뤄보지 못했던 재료를 사용해 봄으로써 용구의 특성과 사용법을 알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용구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학생이 주체가 되는 작품 감상과 발표를 통해 사고를 활성화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어 기존 미술수업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학생들도 전통회화 수업을 즐기게 되었다.

다섯째, 오늘날의 풍속화 그리기 제작을 통해 무심히 지나치던 평범한 일상을 되돌아보고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전통미술인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을 활용한 수업을 통하여 조상들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미의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문화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한국화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계속 된다면 우리 문화의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IV. 결 론

오늘날의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롭고 다양한 문화가 서로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새로운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미술은 반복되어지는 과거의 답습이나 이해가 아닌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창조하는데 근본이 되며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전통미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가치를 깨닫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감상활동 및 표현의 연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미술중에서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고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조선후기 풍속화를 선정하였다.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의 교육적 가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의 역사와 생활상을 기록하여 알게 해주고 우리 민족만의 개성과 정서가 독창적인 미의식으로 반영되어 나타나 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풍속화에 드러난 옛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고 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미술에 대한 감상 활동은 여러 가지 교육의 여건상 교사위주의 주입식 감상활동에 그친 점이 많았다. 또한 학생들의 전통미술과 풍속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학생들이 우리 전통미술에 관심이 없고 접할 기회가 적어서 이해가 부족하였고 대표적인 풍속화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상 교육을 하는데 있어 전통미술을 주변에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한국화 수업의 시수가 더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 외에도 교사와 학생간이 활발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감상수업을 하도록 방법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 먼저 교사와 학생간의 자유로운 대화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풍속화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이해·분석하게 하였다. 또한 모사를 통하여 그림의 표현기법, 형식,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하여 풍속화 책갈피 만들기과 풍속화 이어그리기를 통하여 작품 속 인물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풍속화 전·후 장면 상상하여 그리기와 오늘날의 풍속화 그리기를 통해 예전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생활도 풍속화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종래의 단조로운 감상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다양한 감상 및 표현활동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풍속화 수업을 통해 전통문화와 미술을 이해하게 되었고 도화지, 크레파스, 수채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화선지, 모필, 먹의 사용을 통해 선조들의 정신세계는 물론 시대정신과 생활 속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아쉬운 점은 전통 미술 감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선시대 풍속화 연구와 교육적 가치의 탐색, 그리고 미술교육의 대안으로 다양한 감상의 방법적 탐구와 지도안 제시에 그쳤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적용을 통하여 그 효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현장에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 강관식(2001),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상]」, 돌베개
- 강명관(2001), 「조선 풍속사3(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푸른역사
- 강민기 외 5인(2006), 「한국미술문화의 이해(개정판)」, 학지사
- 김송수(2001), 「우리 그림 여행」, 동녘
- 김원용·안휘준(2003), 「한국미술의 역사」, (주)시공사·시공아트
- 김종태(1990), 「동양회화사상」, 일지사
- 김현주(2002), 「판소리와 풍속화 그 님은 예술세계」, 효형출판
- 노경상(1995), 「한국화 백문백답」, 금호문화
- 박완용(2002), 「한국 채색화 기법」, 도서출판 재원
- 백범영(1997), 「한국화의 이해」, 용인대학교 조형연구소
- 박용숙(1991), 「韓國美術의 起源」, 예경출판사
- 박용숙(2000), 「한국미술사 이야기」, 예경
- 서제섭(1992), 「水墨畵」, 형설출판사
- 안휘준(2010), 「청출어람의 한국미술」, (주)사회평론
- 안휘준(1993), 「한국회화사」, 일지사
- 안휘준(1989), 「한국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 오주석(2008),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솔출판사
- 유홍준(2001), 「화인열전2」, 역사비평사
- 이규선 외(1995), 「미술 교육학 개론」, 서울 : 서울교대 미술 교육 연구회
- 이내옥(2005), 「공재 윤두서」, (주)시공사·시공아트
- 이동주(1975), 「우리 나라의 옛 그림」, 博英社
- 이동주(1996),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 (주)시공사
- 이원복(2005), 「회화」, 솔출판사
- 이태호(1996),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 이태호(2002), 풍속화(하나), 서울: 대원사
- 이태호(2005), 「풍속화(둘)」, 서울: 대원사
-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 정병모(2001),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다홀미디어

정병모(2000),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정양모 외 13인(1993), 「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정영목 외 11인(2008), 「한국의 미술가-인물로 보는 한국미술사」, (주)사회평론
최순우(2003),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학교재
최순우(2003),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학교재

<논 문>

권영명(2010), “전통회화의 조형적 특징을 활용한 삶의 표현 수업방안 연구
: 조선시대 풍속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손영주(2005),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수업을 통한 표현활동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신동임(2009), “朝鮮後期 風俗畫의 背景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심연주(2008), “조선후기 풍속화 감상 교육 연구 : 중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기 타 문 헌>

국립광주박물관(2002), “朝鮮時代 風俗畫”, 국립광주박물관 전시도록.
노영자 외 4인(2011), 「초등학교 미술 5~6 지도서」, (주)교학사.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국정도서편찬위원회(2010), 「미술 3, 4학년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주)교학사.
전성수(2000), 「표현·감상과 통합된 이해지도의 관점과 실제」, 한국미술교육학회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ABSTRACT>

A Study on Art Teaching Method Using Appreciation
of a Genre Painting in the Late Choson Dynasty
- Focused on 3rd to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un-kyung Ko

Department of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Dong-eon Kang

Today's modern society requires a lot of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also emphasizes various culture experience and appreciation in art education. However, the present art education in Korea lacks a correct understanding and awareness about traditional art-Korean painting, and the posi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 is losing ground because of especially the West-oriented education. In this regard, we should take interest in our culture not to lose worth and identity, and further we need effort to develop and to inherit Korean painting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On this, I chose a genre painting in the late Choson dynasty among Korean painting in this study because a genre painting is effective to make students having an interest in it and understanding the period. A genre painting in the late Choson dynasty lets us know the history and lifestyle of that time we don't have experience, and reveals being reflected sentiment and individuality, creative aesthetic consciousness of our own nation. In addition, we can developing ability to creatively think and wide awareness through the process of expressing a reflection of various experience as the subject by comparing current our lives and the lives of ancestors

in a genre painting.

To this end, I suggest teaching method by using expressive activities through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activity, that makes students being able to develop their ability to look at art and to improve expressiveness through a appreciation education of a genre painting in the late Choson dynasty.

To progress classes, I referred to books, the collected paintings, thesis, internet material, etc. to help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activity, and applied to real classes to improve creative themes expression and formative thinking skills through expression activity to reconstitute artworks. Result of teaching which combines these understanding·appreciation·expression activity is as follows:

A genre painting in the late Choson dynasty reflects in various aspects like that periods history, culture, life, ideology, aesthetic sense, students hereby were able to understand the world of spirit of ancestor, a lifestyle, and cultural characteristic.

The second, I have learned the instruction and a characteristic of tools by using the materials which usually never handled through expression activity to understand a formative characteristic of a genre painting in the late Choson dynasty.

The third, the process of appreciating and reconstituting various a genre painting helps students to improve creatively expressible expressiveness in accordance with thinking and purpose by expanding the expressing subject.

The fourth, students were able to invigorate thought and have confidence through appreciation and presentation as well as can enjoy traditional art class.

Finally, the fifth, to work a genre painting was the opportunity to look back on inadvertently passing the ordinary daily life and to understand rightly about oneself.

If ongoing a study and efforts is continued to develop Korean painting education, to improve creative thinking, and to expand express activities, it can be expected to give students a helping to understand rightly about tradition of our culture and to develop a creative thinking.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2012. 8